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사회의 언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金 喆 泳**
yuiyu1004@dongduk.ac.kr

<要 旨>

本稿では2011年3月に起きた東日本大震災によって日本社会において以前より目立つようになった外国人住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問題を克服するために、既存のバリアフリー(Barrier Free)或いは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Universal Design)という概念を言語にも応用して、言語におけるバリアをなくすか和らげる「言語バリアフリー・Language barrier free」という概念を取り入れた。そして、その具体的な対策として公的部門の日本語テキストにおける「やさしい日本語」或いは「日本語テキストにおける可読性判断」の可能性に関して模索してみた。その結果、次のような結論が得られた。

- 1) 日本社会・コミュニティにおいて、外国人住民を対象とする「公的情報提供」における「言語バリアフリー」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は大きく「平常時」と「災害時」と二つに分けられるが、さらに前者は「平常時①—平常時」と「平常時②—災害復旧・復興」に、そして後者は「災害時①—災害当時・直後」と「災害時②—非難後」に分けられる。
- 2) 日本の厚生労働省が発した「公的情報提供」のためのテキストを、学年別教育漢字と日本語能力試験のレベル別漢字データベースをもって検討した結果、外国人住民が「バリア」を大きく感じるほど多数の漢字が使われている上、使用された漢字のレベルもまた高いことが分かった。つまり、これから積極的に「やさしい日本語」に対応し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を示唆することである。
- 3) 調査対象になったテキストを「やさしい日本語」に対応させるために、次のような方法が必要とされることが確認できた。
 - 3-1) 漢字使用の抑制及び振り仮名の表記、そして難しい語彙や表現におけるやさしい表現への変換が必要とされる。
 - 3-2) 高いレベルの漢字が使用された「動詞及びその他」を中心に「やさしい日本語」に対応させる必要があつて、順次に「医学及び身体用語」にも対象を拡大していく必要がある。
 - 3-3) 「固有名詞」と「医学及び身体用語」の漢字の場合、無条件的な漢字の排除ではなく、振り仮名の表記、理解を助けるための注釈などの配慮を通じて「やさしい日本語」に対応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結果は漢字に限った検討であつて、これからは文法・語彙など、より多様な側面における総合的な検討が必要とされると思われる。また、今後には「災害時」やあらゆ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媒体における「言語バリアフリー」や「やさしい日本語」の拡大のために更なる考察を行い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 배리어프리, 언어 배리어프리,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텍스트 가독성, 동일본대지진

1. 들어가며

2009년도 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의 등록자수는 221만 7426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46.6% 증가했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에 이르러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연구번호 : 201302616).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nt(No. 201302616).

**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서는 259만 1,360명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 내 뉴커머(새로 이주해 온 외국인)가 많이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법무성 통계: 登録外国人統計統計表).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경을 뛰어넘는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 추세와, 일본 사회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필요 수요(e.g. 산업 연수생, 3D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배경으로, 일본 사회(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공생 사회’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단지 외국인 주민에게만 일본어 습득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와 일본인도 ‘다언어화’ 및 ‘정보전달에 용이한 쉬운 일본어 표현’ 등을 고민해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발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 불충분하며, 이들은 일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나 제도 등의 차원에서 많은 장벽을 느끼고 있다(마쓰오카 요코松岡洋子(2012) 등). 특히 수도권이 아닌 산간오지 등 외국인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의 경우, 다언어에 대응한 생활정보, 상담, 통역 등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등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와중에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와 같은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한 재해로 인해 수많은 가옥과 사회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수소폭발까지 발생하여 수많은 일본인은 정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은 오직 일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별활동 및 산업체 연수생 등을 포함 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등, 여러 수많은 재일 외국인(혹은 재일 외국인 주민, 이하 외국인 주민)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에게 상존하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외국인 주민들은 일본어가 유창하지 못한 탓에 보통의 일본인보다 더욱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관습 그리고 제도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 탓에 수많은 외국인 주민은 또 다른 차원의 곤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외국인 주민들은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로 재난 시의 대피뿐만 아니라 재난 후의 복구 및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거듭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걱정하고 있는 모국의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으로 인해 ‘가족을 버린 배신자’ 취급을 받는 등, 문화

및 정서적 차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본 사회 안에 상존하는 외국인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¹⁾’ 혹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²⁾이라는 개념을 언어에 도입시켜, 언어의 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언어 배리어 프리 Language barrier fre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공적 부문의 일본어 텍스트에 있어서의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혹은 ‘일본어 텍스트의 가독성 판단’ 등에 관한 가능성에 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2.1 언어 배리어 프리

전 장에서 언급한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종래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근래 들어 이와 같은 개념은 그 대상이 고령자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점차 더욱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e.g. IT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 배리어 프리’). 이에 본 연구자는 그와 같은 개념이 다문화화 하는 일본 사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배리어’를 느끼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인 ‘외국인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 외국인 주민에게 있어서도 ‘배리어’, 즉 ‘장벽’은 존재하며 그것은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언어’라는 것이다.

2.2 ‘다언어화’ 혹은 ‘다언어 대응’

이와 같은 ‘언어 배리어 프리’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다언어화’ 혹은 ‘다언어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쿠마노(熊野正 외:2001)에 의해 기획된 일영번역 시스템이 2000년도 NHK에서 실제로 운용되어 호평을 얻었으며, 또한 다나카 유카리田中ゆかり(2009)는 수도권의 다언어표시는 일본어와 영어 이외

1)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1974년 유엔 장애자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발생한 개념. 원래 건물 등의 거주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배리어, 즉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건축학적 용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정보 전달 장벽, 자격과 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 혹은 법률적인 차원의 장벽, 그리고 차별과 편견 등 정신 및 의식상의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그 적용 대상도 장애인에서부터 고령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2)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도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 다른 말로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도 한다.

에도 중국어·한국어 등 4개 언어가 표준 모델 언어라고 ‘다언어 대응’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을 외국에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언어 대응’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몇몇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유용한 정보를 과연 몇 개 국어까지 대응시켜야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언어 대응의 핵심 언어로 자주 언급되어 왔던 영어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다음의 (1)과 같이 하야시다 마사시林田雅至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 (1) 일본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Language Barrier Free라는 것은 이렇게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살기 좋도록 ‘언어의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이나 시도를 가리킨다. ... 중략 ... Language Barrier Free(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것)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영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어가 곧 영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만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하야시다林田雅至: <http://www.cscd.osaka-u.ac.jp/2012/000473.php>

범례) 필자에 의한 번역

상기 하야시다林田의 경우, 언어에 있어서의 ‘배리어 프리’라는 발상과 함께, 영어가 곧 외국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한데, 실제로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약 44%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62.6%에 이르는 다수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 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영어가 만능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이와타 카즈나리岩田一成(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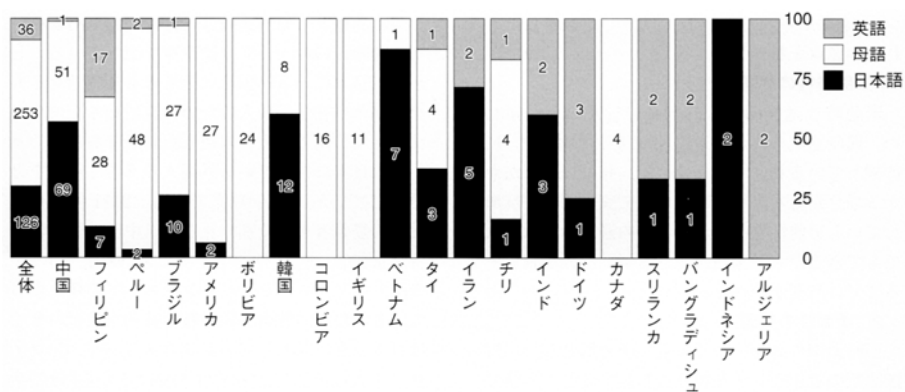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주민이 재해 후의 상담에서 선택한 언어(롱 다니엘ロング 다니엘(1997))

실제로 그림 1과 같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언

어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모국어 다음으로 영어가 아닌 일본어를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모국어 : 일본어 : 영어 = 253 : 126 : 36). 더욱이 현실적인 문제로, 수많은 외국어에 일일이 대응하여 ‘다언어 대응’을 확대할 수도 없으며, 또한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 필요하게 될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연구의 계기가 된 자연재해를 전후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시기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다언어 대응’은 다음의 (2)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 a. 즉시성의 문제: 긴급 방송을 즉시 외국어로 전송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다언어에 대응하는 동시 통역사를 상주시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b. 유연성의 문제: 통역사를 상주시키지 않아도 지정된 멘트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미리 준비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전달하는 것은 곤란하다.
- c. 응용성의 문제: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다언어에 대응한 정보를 전달 받았다 손 치더라도(e.g. emergency shelter), 일본 사회 안에서 해당 정보를 응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대피한다든지 도움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e.g. 실제 표기는 避難所).
- d. 현실성의 문제: 외국인이 반드시 영어권 출신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제2언어로서의 영어보다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 e. 사용 언어 수의 문제: 십여 개가 넘는 다수의 언어로 정보를 송신할 경우,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순서상 뒤로 밀린 언어의 경우 긴급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없기에 긴급 대피 등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f. 지역성의 문제: 지역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과 모국어의 비율이 상이하다. e.g. 나고야名古屋 등 중부지방에는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갖는 브라질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나, 도쿄東京의 경우 포르투갈어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롱ロング(1997)

위와 같이 ‘언어 배리어 프리’를 위한 대책으로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언어 대응’만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언어 대응’에도 직관적이며 이미 많은 부분 진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등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일본어’에 대한 수요와 ‘재난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언어 대응’ 이전에 외국인 주민에게 있어서 일본어 자체에 대한 ‘배리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언어 배리어 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3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

재난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때에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롱

ング ダニエル(1997), 이오리 이사오庵功雄(2009) 등은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히로사키弘前 대학을 중심으로 「外国人被災者のための地震災害基礎語彙シソーラス試案」(사토 카즈유키佐藤和之(2009)), 『「やさしい日本語」作成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2010), 「外国人用地震災害基礎語彙100」, 등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의 (3)과 같다.

(3) a. 消防車 → 火を消す車

b. 集中する → たくさんある

1) 水が集中している → 水がたくさんある

c. 集中する → たくさん~している

1) 人が集中している → 人がたくさん集まっている

「やさしい日本語文の作り方」『新版・災害が起こったときに外国人を助けるためのマニュアル』(2005)

위 예시를 통해 ‘알기 쉬운 일본어’는 일본어 텍스트에 있어서 가급적 한자사용을 자제하고, 거기에 더해 어휘 및 표현의 수준을 조절하여 일본어에 관한 지식이 낮은 독자의 이해를 최대한 배려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침을 따라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일본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언어 배리어 프리’ 대책은, 유사시 혹은 재난에 대비하는 ‘평상시’와 긴급을 요하는 ‘재난시’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피난소 안내, 재난 지도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평상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지진·쓰나미 등 재난이 발생한 ‘비상시’의 커뮤니케이션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시간 제약’과 ‘전달 매체’라는 차원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의 커뮤니케이션을 ‘평상시’와 ‘재난시’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시’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전달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크게 ‘공적 정보제공’과 ‘근린 주민과의 상호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마츠오카松岡:2012, 8),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자면 본고에서는 주로 국가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적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한다.

2.4 ‘평상시’와 ‘재난시’ 그리고 ‘전달매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마츠오카松岡(2012)는 ‘재난시’의 ‘공적 정보제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세 가지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4) a. 재해 직후

b. 피난 시기

c. 재해 이후의 부흥, 회복기

마츠오카松岡(2012:8)

그러나 위 (4)와 같은 분류는 엄밀히 말하자면 ‘재난시’(4a・b)와 ‘평상시’(4c)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4c)와 같은 재해 이후의 부흥・회복기에는 (2a・b・c)와 같은 ‘긴급성’은 급격히 떨어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난으로부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정보제공의 ‘속도’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필요성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발표자는 다음의 (5)와 같이 재난시의 일본 사회(커뮤니티)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정보제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배려, 즉 ‘언어 배리어 프리’를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를 ‘평상시’와 ‘재난시’로 나누고, 이를 다시 평상시①과 평상시②((5) a・d), 그리고 재난시①과 재난시②((5)b・c)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a. 평상시①: 평상시(유사시를 대비하여 상존하는 위험의 공지, 피난장소 안내, 지역 커뮤니티 내 커뮤니케이션)
- b. 재난시①: 재난 당시・직후(긴급피난정보, 재난상황 안내, 가족 및 친지의 안부 확인)
- c. 재난시②: 피난 이후(피난소 및 생활정보, 지원 정보, 재난 속보, 귀국 정보)
- d. 평상시②: 재난 수습・복구 및 부흥(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보상 및 지원정보, 보험 및 사회보장 정보, 출입국 정보, 주거 지역의 복구계획)

즉, ‘평상시’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 혹은 행동을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준비할 여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2d)와 같이 영어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림 2와 같은 외국인주민의 모국어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외국어를 선정(e.g. 일본어, 영어, 중국어・한국어 등)하고 이에 따라 ‘다언어 대응’을 기본으로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g. 피난지 지도, 재난 지도, 각종 공공 표지판, 노동재해 보상 안내, 보험금 안내 등). 물론 그와 동시에 일본어 텍스트도 기본적으로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재난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2)와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를 메인으로 하여, ‘언어 배리어 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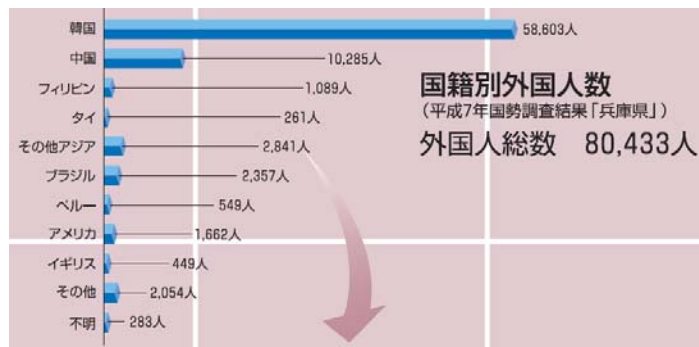


그림 2. 국적별 외국인 주민 수(헤이세이平成 7년(1995), 효고현兵庫県 통계) - 「やさしい日本語」パンフレット(弘前大学(2006))

한편, ‘평상시’와 ‘재난시’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매체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즉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매체와 그 유효시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5) [커뮤니케이션 매체]	[유효시기]
a.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문서	‘평상시’
b. 인터넷	
c. 휴대전화	
d. 광역 방송 매체(텔레비전)	
e. 신문, 광역 방송 매체(라디오)	
f. 지역 방송 매체(재난 무선, 안내 방송)	
g. 게시판, 포스터	‘재난시’

위 (5)에서 언급한 매체는 ‘평상시’에 보다 더 유효한 매체 순서로 배열한 것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재난시’에 유효한 매체가 된다. ‘재난시’에는 전기·수도 등 라이프라인과 통신 인프라가 마비 될 가능성이 높고,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즉시성의 문제’와 ‘유연성의 문제’ 그리고 ‘사용 언어 수의 문제’ 등을 해결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가 보다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공적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평상시’와 ‘재난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를 통해 ‘언어 배리어 프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5)a와 같은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문서에 있어서의 일본어 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본어 텍스트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업체 연수·특정 활동 등에 종사하던 노동자나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등의 외국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들은 (5)d의 평상시②와 같은 재난 수습·복구 및 부흥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보상 및 지원정보, 보험 및 사회보장 정보, 출입국 정보, 주거 지역의 복구계획’ 등의 이후의 생계와 밀접한 정보를 얻는 데에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미지불임금과 관련된 정보, 노동재해 보상 등,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일본어 텍스트의 ‘가독성’ 문제를 알아보고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텍스트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3.1 조사 대상

본고의 조사대상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일본대지진 관련정보東日本大震災関連情報³⁾」 페이지 및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정보제공 문서 중, 외국인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의 (6), (7)과 같다 (단, 내용이나 문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에만 실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일본어 텍스트 이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영어 텍스트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⁴⁾, 일본어 텍스트 정보와 비교해 볼 때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게 있어서 일본어 텍스트의 가독성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6) [분야별 동일본대지진관련정보]

a. 건강·의료

「避難所生活を過ごされる方々の健康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東日本大震災に係る妊婦健康診査の取り扱いについて」「こころの健康を守るために」「東日本大震災に伴う保険診療の取扱いの利用状況等について」「放射線の健康影響に関する一般の方に向けたQ & A」

b. 식품·수도

「食品中の放射性物質の新たな基準値」「食品中の放射性物質にかかる基準値の設定に関するQ & A (平成24年7月5日)」「食品中の放射性物質の基準値についての概要」「乳児による水道水の摂取に係る対応について」「水道水中の放射性物質に係る指標の見直しについて」「食品からの放射性物質の摂取量の推計について」

c. 재해보조·생활지원

「災害弔慰金・災害援護資金などの支援について」「災害救助について」「災害援護資金の概要」

d. 고용·노동

「休業中の方がボランティアをした場合について」「東日本{大震災の復旧・復興のため除染作業を行う皆さまへ}」「東日本大震災により行方不明となった労働者のご家族の方々へ」「請求(申請)のできる保険給付等」「労災保険給付の概要」「東日本大震災に伴う労働基準法等に関するQ & A (第3版)」「東日本{大震災に伴う派遣労働に関する労働相談Q & A}」「未払賃金の立替払制度のご案内」「未払賃金の立替払制度の手続のご案内」「財形住宅・年金貯蓄を利用されている皆様へ」「財形持家転貸融資の特例措置のご案内」「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等のご案内」「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の拡充のご案内」「除染等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の放射線障害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概要」「特定線量下業務従事する労働者の放射線障害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概要」「事故由来廃棄物等処分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の放射線障害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の概要」「事故由来廃棄物等処分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の放射線障害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雇用保険失業給付の給付日数をさらに延長します」「雇用調整助成金・中小企業緊急雇用安定助成金に新しい特例を設けました(平成24年3月9日)」

3) http://www.mhlw.go.jp/shinsai_jouhou (2013년 8월)

4) Information o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http://www.mhlw.go.jp/english/topics/2011eq>

e. 사회보험·노동보험, 복지·간호 및 그 외

「労災保険制度のご案内」 「東日本大震災の被害状況および対応について」

(7) [동일본대지진관련정보 중, 팜플렛 및 리플렛]

a. 생활지원뉴스

「厚生労働省の発行したパンフレット・リーフレットなど」 「被災者、支援者、行政関係者等のみなさまへ(第1号) ～ (第6号)」 「生活支援ニュース (第1号) ～ (第4号)」

b. 후생노동성이 발신한 팜플렛 및 리플렛

「船員保険の加入者、船舶所有者の皆さまへ(平成23年4月25日)」 「医療保険の一部負担金等(窓口負担)の免除について一健康保険組合又は協会けんぽにご加入の方」 「医療保険の一部負担金等(窓口負担)の免除について一市町村の国民健康保険又は後期高齢者医療制度にご加入の方」

「熱中症を防ぐために」 「医療機関等で受診される被災者の皆さまへ」 「医療機関等を受診された被災者の方々へ」 「母子保健サービスについて」 「こころの健康を守るために」 「被災地で、発達障害児・者に対応されるみなさんへ(その1)～(その3)」 「避難先などでも必要な介護保険サービスの利用が可能です(4月1日)」 「障害者自立支援法に基づく障害者(児)への福祉サービスや自立支援医療などの利用について」 「東日本大震災に伴う障害福祉サービスの提供等の取扱いについて」 「被災地において介護保険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事業者の皆様へ(5月6日)」 「介護サービスを利用される被災者の皆様へ」 「被災されて、仕事のことでお困りの方へ～お勤めの方、失業された方へ、震災に伴う支援策のご案内～」 「震災により休業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事業主・労働者の方へのお知らせ」 「雇用調整助成金・中小企業緊急雇用安定助成金に新しい特例を設けました(平成24年3月9日)」 「派遣労働者の雇用の維持に雇用調整助成金を活用してください」 「平成23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労働基準法等に関するQ&A(第3版)」 「解雇や雇止めに関するルールについて」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係る警戒区域等における休業に関するQ&A」 「がれきの処理における留意事項～がれき処理作業を行う皆様へ～」 「がれきの処理における留意事項～事業者の皆様へ～」 「がれき処理に伴う労働災害を防止するために」 「労災保険制度Q&A」 「未払い賃金の立替払制度のご案内(概要)」 「未払い賃金の立替払制度のご案内(詳細)」 「未払い賃金の立替払についてのQ&A」 「学生等震災特別相談窓口等のご案内」 「震災の影響に伴う労働者派遣に関するご相談については、ハローワークの特別相談窓口でも受け付けます」 「「広域求職活動費」と「移転費」の概要」 「東日本大震災により被災された皆さまへ～被災された方々を積極的に採用する求人があります!～」 「東日本大震災により被災された既卒者の皆さまへ～被災した既卒者を積極採用する求人があります!～」 「被災された学生・既卒者の皆さまへ～首都圏の就活のための宿泊施設を提供します」 「財産持家融資制度の特例措置等のご案内」 「東日本大震災により被災された皆様へ(財形持家融資の返済方法変更についてのご案内)」 「国民年金・厚生年金のお知らせ」 「東日本大震災に伴う雇用保険失業給付の給付日数の延長」 「東日本大震災心の相談電話」

「除染作業を行う方の労災保険特別加入について」 「平成23年(2011年)東日本大震災の被害状況

及び対応について(第116報)」「平成23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雇用保険の特例措置に関するQ & A」「被災された方が、雇用保険に未加入だった場合の手続きについて」「被災された学生・既卒者の皆さまへ ～首都圏の就活のための宿泊施設を提供します」「被災した方々への雇用支援のご案内」「被災地の被保険者、事業主、船舶所有者のみなさまへ」「作業中の方がボランティアをした場合の失業給付の取扱いについて」

3.2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상기 모든 텍스트를 다음 그림 3과 같은 일본어 텍스트 가독성 분석 프로그램인 「AJ-JpnRa Tool」⁵⁾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의 비율 및 출현 한자 레벨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일본어 텍스트의 가독성을 검토하고,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라는 측면에서 ‘공적 정보제공’의 개선 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표 1. 『学年別漢字配当表』, ‘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 『常用漢字』
및 ‘JLPT 기출한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필드 이름	데이터 형식	비고
no	숫자	일련번호
character	짧은 텍스트	한자
character_ver	짧은 텍스트	이체자
radical	짧은 텍스트	부수
strokes	숫자	획수
lv	짧은 텍스트	레벨
add_year	숫자	추가년도
read01	짧은 텍스트	읽기 / 음
read02	짧은 텍스트	
read03	짧은 텍스트	
read04	짧은 텍스트	
read05	짧은 텍스트	
mean01	짧은 텍스트	뜻 / 훈
mean02	짧은 텍스트	
mean03	짧은 텍스트	
mean04	짧은 텍스트	
mean05	짧은 텍스트	
mean06	짧은 텍스트	
mean07	짧은 텍스트	
mean08	짧은 텍스트	
mean09	짧은 텍스트	
mean10	짧은 텍스트	
eg01	짧은 텍스트	예문
eg02	짧은 텍스트	
eg03	짧은 텍스트	

5) 「AJ-JpnRa Tool」v.1.0.0.0 : Visual Studio.NET 2012을 기반으로 필자가 독자 개발한 ‘일본어 텍스트의 가독성 분석 툴’. 본고를 위해 디자인 및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2013년 11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원고를 통해 공개 예정. 추후 프로그램을 공개할 경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http://www.japanese.or.kr/japanesetool/Readability%20Tool%20Series/AJ-JpnRa_Too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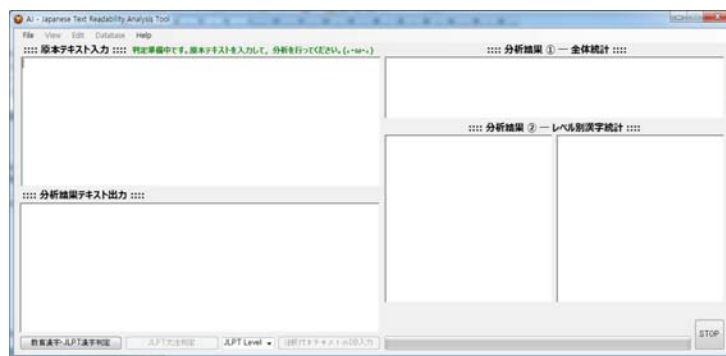


그림 3. 「AJ-JpnRa Tool」v.1.0.0.0 실행화면

구체적으로, 「AJ-JpnRa Tool」은 다음의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표 1)를 기반으로 주어진 텍스트의 한자 레벨을 판별하는 데, 우선 일본 초등학교의 학년별 교육한자인 『小学校学習指導要領』의 부록 『学年別漢字配当表』 1006자 및 ‘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 1130자 그리고 이를 합한 일본어의 상용한자인 『常用漢字』 2136자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학년별·상용한자 레벨을 측정한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통해 구축한 최근 20년간⁶⁾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4급)과 새롭게 바뀐 일본어능력시험(N1~N5)의 기출한자⁷⁾ 2195자를 기반으로 한 「일본어능력시험 기출 한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JLPT 한자 레벨을 측정한다.

(8) [한자 데이터베이스 예시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일련번호 순)]

a. 『学年別漢字配当表』중, 초등학교 1학년 한자 예시 : 80자

一右雨円王音下火花貝学気九休玉金空月犬見五口校左三山子四糸字耳七車手十出女小上森人水正生青夕
石赤千川先早草足村大男竹中虫町天田土二日入年白八百文木本名目立力林六

b. 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 중 일부 : 1130자 중, 200자

亜哀挨曖握扱宛嵐依威為畏尉萎偉椅彙違維慰緯壹逸茨苧咽姻淫陰隱韻唄鬱畝浦詠影鋭疫悦越謁関炎怨宴
媛援煙猿鉛緑艶汚凹押旺欧殴翁奥岡岡憶臆虞乙俺卸穩佳苧架華菓渦嫁暇禍靴寡箇稼蚊牙瓦雅蛾介戒怪拐悔
皆塊楷潰壞懷諧効崖涯慨蓋該概骸垣柿核殻郭較隔獲嚇穫岳顎掛瀉括喝渴葛滑褐轄且釜鎌刈甘汗缶肝冠陷
乾勘患貫喚堪換敢棺款閑閑寛飲緩憾還環韓艦鑑含玩頑企伎岐忌奇祈軌既飢鬼龜幾棋棄毀畿輝騎宜偽欺
儀戲擬穢菊古喫詰却脚虐及丘朽臼糾

c. 상용한자 중 일부 : 2136자 중, 200자

間足後雨行一今入飲生上午馱円多大男女買会学金川気聞木来北九口国車言子五語校魚先三下七社週十書
少食白新千外空立高小父月土手出天電時友中長何二酉年八花話母半火日東左人百分本每前万見右水店
道南耳目名安休山読四六開合青赤明秋悪朝味頭暑兄姉洗歩意医家池市犬妹色員院壳動牛歌映海運英遠起
送音弟同思重終貸代画回界帰顔風紙体輕漢館考着急京教業切究銀区菓首暗黒計研果工声心答事理転去菜
寒産死知字自親室質品写借弱集所験

6) 최근 20년간(1990년~2009년), 일본어능력시험 한자·어휘 영역의 기출한자 기준.

7)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신형 일본어능력시험의 언어지식 중 문자·어휘 영역의 기출한자 기준.

d. JLPT 기출한자 중, N5급 한자 : 103자

間足後雨行一今入飲生上午駅円多大男女買会学金川気聞木来北九口国車言子五語校魚先三下七社週十書
 少食白新千外空立高小父月土手出天電時友中長何二西年八花話母半火日東左人百古分本毎前万見右水店
 道南耳目名安休山読四六

4.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언어 배리어프리’

룡(1997)의 경우, 그림 4과 같이 교과서와 방송 자료의 문장길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텍스트의 가독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있으나, 지금까지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에 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어왔다. 미즈노 요시미찌水野義道(2006)의 경우, ‘알기 쉬운 일본어’를 구舊 일본어능력시험 3급 레벨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오리庵(2009, 2011)의 경우 일본어능력시험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때 3급은 너무 레벨이 높으며, 자연스럽게 이보다 더 낮은 레벨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오리庵(2009, 2011)의 연구 결과의 기준에 따라, 구舊 일본어능력시험 4급 이하의 수준 즉, 신新 일본어능력시험의 N5레벨을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의 수준으로 상정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본고의 (6), (7)와 같은 조사 대상 텍스트를 (8)과 같은 한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J-JpnRa Too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전에 우선 간단히 조사대상의 개요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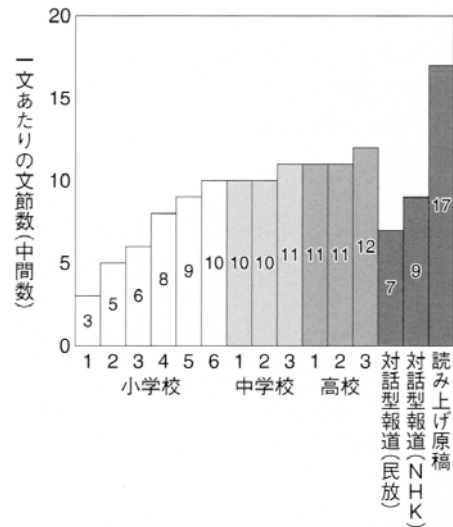


그림 4. 교과서와 방송자료의 문장길이-중간 수 비교(룡1997)

표 2. 분석 대상 텍스트에 대한 일반분석 결과

- | |
|---|
| 1. 모든 문자 : 407,398자(전각 및 반각 공백 : 16,489자) |
| 2. 공백 제외 문자 : 390,909자 |
| 3. 히라가나&가타카나 : 141,642자 / 전체 문자 대비 가나假名비율 : 36% |
| 4. 한자 : 163,835자 / 전체 문자 대비 한자비율 : 42% |

표 2를 통해 조사대상 텍스트의 약 42%를 한자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한자의 비율이 가나假名の 비율(3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고의 주된 조사대상인 팜플렛 및 리플렛 등에는 한정된 크기의 지

면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자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문의 본문보다 표제어에 한자 및 한자 약어가 많이 쓰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평상시’에 있어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달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지면의 크기를 늘리더라도 가급적 한자 사용을 자제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본어 텍스트 가독성을 높여 ‘알기 쉬운 일본어’를 실현하는 데에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자 사용 비율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절대적 수치에 관해서는 더욱 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와 교과서 등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4.1 초등·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를 기반으로 한 한자 레벨 분석

그렇다면 실제 텍스트의 상세한 한자 사용의 양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일본의 초등학교 각 학년 및 중학교까지 학년별 교육한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고찰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참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년별 교육한자를 모두 합하면 상용한자와 동일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일본어 텍스트 가독성(레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년별 교육한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표 3. 초등/중학 학년별 교육한자 통계 (전체어수)

초등 1년 : 17,615자 / 비율 : 11%
초등 2년 : 29,269자 / 비율 : 18% / 누적비율 : 29%
초등 3년 : 36,603자 / 비율 : 22% / 누적비율 : 51%
초등 4년 : 26,251자 / 비율 : 16% / 누적비율 : 67%
초등 5년 : 23,617자 / 비율 : 14% / 누적비율 : 81%
초등 6년 : 10,361자 / 비율 : 6% / 누적비율 : 88%
초등 전학년 : 143,716자 / 비율 : 88%
=====
중학 전학년 : 19,867자 / 비율 : 12%
=====
초중 전학년 : 163,583자 / 비율 : 100%
=====
상용한자 레벨초과 한자 : 150자 / 비율 : 0%

범례) 각각의 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값으로, 총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고에서 실시한 일본의 초등학교 각 학년 및 중학교까지 학년별 교육한자와의 대조 결과, 조사 대상의 일본어 텍스트는 중학교 교육한자를 이수한 정도 학습수준의 한자레벨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9)h와 같이 150자(전체한자 수, 개별한자 수는 85자)에 해당하는 한자가 교육한자 즉, 상용한자의 레벨을 뛰어 넘고 있기는 하

다. 이후의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상용한자의 레벨을 초과하는 한자는 ‘지명’ 및 ‘인명’ 등 고유명사를 제외하면 ‘의학 및 신체용어’에 집중되어 있어, ‘알기 쉬운 일본어’의 방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본어 텍스트에서 가급적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한자에 대한 사용을 피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후리가나振り仮名를 붙이는 방식으로 외국인 주민에 있어서의 텍스트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19,867자(전체한자 수, 개별한자 수는 550자)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에 대한 집중적인 ‘알기 쉬운 일본어’화를 통해, 초등학교 수준의 한자 텍스트 가독성을 유지하여 외국인 주민의 언어 배리어(장벽)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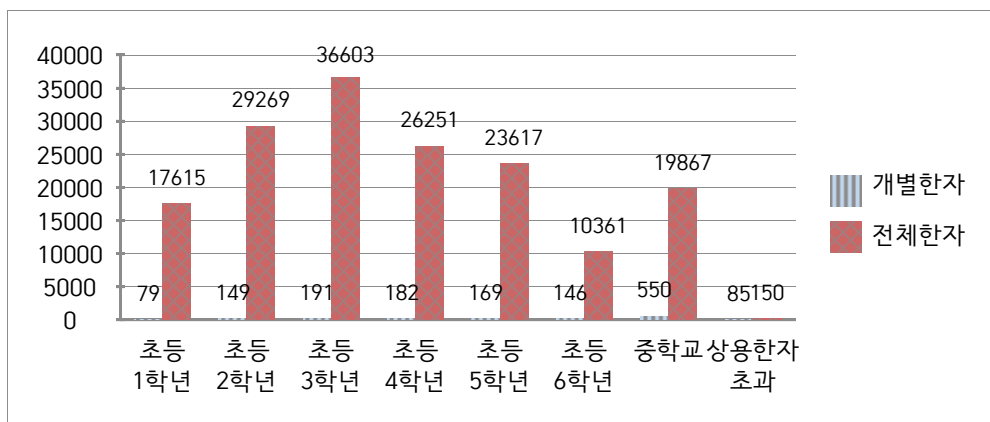


그림 5. 초등·중학교 학년별 교육한자를 기반으로 한 한자 레벨

참고로 본고의 조사대상 텍스트에 출현한 학년별 교육한자를 나열하면 다음의 (9)와 같다. 그러나 ‘알기 쉬운 일본어’의 수준을 초등학교 학년별 교육한자에 맞추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한자 레벨 분포를 보이는 한자들을 조금 더 직관적인 레벨 분류가 가능한 일본어능력시험의 한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류해 본다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에 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9) [초등 및 중학교의 학년별 교육한자 및 상용한자 해당 한자(개별한자 수)]

a. <초등학교 1학년> 79자

千火糸一七木八雨玉中山先左休月目赤水早校気犬円小日耳土四音本入手夕森立女子石王上白百字力正文年
九生五青草足天二金貝大人右町田学名男口車見花六村林空川虫三十下

b. <초등학교 2학년> 149자

答話魚公買米多記考時間計友晴台黒言弟壳牛海行黄古風前原近明店昼電工広活園歩里春野方曜夜新肉分切夏
当語書道父親社番長同太角丸地算万合冬形科遠姉岩秋通茶画引家知麦用室色池鳥今弱矢週強組止顔場絵首妹

紙東心高外谷來內藥南午朝半馬毛細西教間京母每門交後線点作戸自体回何頭数国船因北直理食少誦光声雪市
元兄思婦会

c. <초등학교 3학년> 191자

配等具全放輕湖階品取負反者皮流丁苦急員号実族館橫旅血着所飲神起和係返港表想洋鉄第物追葉面昭乘祭寒
根重県列烟庫庭駅界度島打他商写落悲投荷筆惡湯薬部育待運守定役礼農世央勝指速調平安対岸勉暑主委秒暗
究路始宿曲温消決短両談由箱宮豆客死送持仕感発登動終進意鼻陽帳題病福銀習問院代助板級植水齒去転予
事都研式次期深申命業真有味受服章開童幸州美注身緑向波相炭整住化球集遊橋使坂練息区医様酒屋柱局

d. <초등학교 4학년> 182자

伝費録改束の席帶標隊貨共貯果試老照滿參訓司案季億建景浴静覚焼然祝孫鏡無要府特胃底選料衣観好浅副争
飯牧信類栗采察初漁量康省課停節例仲変印敗松拳便達養借失辺官側夫積兆不粉健完冷候清置説折求害腸付給
管結菜愛歴産梅型験議械象民器毒材脈軍連氏種働刷勞塩令以努加必単告喜卒念協欠約望熱法堂郡賞極良成別
周最救倉陸順得願徑末末札泣固臣位低機囲各開関戰散児航包希利差残治徒士典統兵殺

e. <초등학교 5학년> 169자

支構居師酸政耕賁増財富素貧境似綿弁確輸衛性版術解技導可枝保非許均厚易情設規祖則職往旧能制損率序修
述燃応迷留格策在刊統寄眼桜際奈断武質圧再災減判価現務略混態罪適基精製容示個婦測証提移久慣独暴勢退
限識程液稅経張護険任造絶効件額講像禁仮志妻状授徳承準銭領備預織防比採報接検破賀宮余資益興故舌過舍
団潔条総復謝義犯複鉦因恩招群選評編属布常査飼河續貸

f. <초등학교 6학년> 146자

障筋胸段貴縮枚拉収疑藏層映若討晩從權專射延将模訳尺衆視訪就激片洗割簡創論庁翌針著嚴派糖源奮諸覽供
看縦系骨密寸乱乳処刻優勝異棒冊認域灰由株遭穀濟城署裏裁秘装宅暖宇誤私腹操姿卵宜並勤補暮降痛值忘劇
揮警泉除脳策欲盛納座紅郵郷臟呼砂推展幼善我閣探閉頂危亡律賃至捨干窓臨傷困敬卷吸難染己拝届存潮沿班
否担

g. <중학교> 550자

駐芝審槽浦弔宸旋腐軟勸搬芋寧駄宛宜圈皆彈惱載還芳杉崎患微較稻疏硬泊香弧又邪妨慈猶津荒猫怠繁即碎
伐塞驛占塗鑑慮迎慢遡魔脂迅擊菌睡蚊督酬腺籍徐撲濕迫淚漏循撒辛燥恣微濯徹房湧板埋充尿附衡互堀涼茨涉
敏洪御眠双渴涯鉛髮乏玩菓敷釜懇懸途簿乾弘淡赴渡訴积懲壞滯壤扇滑壁閑扱滋麻扶裕默滅丈称暇援与殿吐及
姬忙潜尋戒祈祉墜茂唾旬抄尽歳憩尾潰戾醇培仙埼瞬瞭粒遣袖頼偏鈍賠袋粹介苗瀨旨溶腰欄拓既旦礎麵契被晶
奈畜網渴普聰添棄倒弊隙奇陰促阜陳巾購僚并括拭施抛熨岐奪耐陷繕妒租了扱奥昇抑賦襲抗拒把潤逸鹿豪絡依
炊是葛炎押抽紛抱齡褐岡抵佐為貼阪遭胞殖販賁殊疾盤搜紹暫慎拔棚胎贈捕煙抄替捉葬併更吉紫累傘索雇婚瓶
賜吹慰雰姻緒濁傍濃却邸緊桑含恨肝踪離鮮企肪踐傾誘伸桁伺債濫妙織隔催伴頸緩隨緯締環戚触詰繰該繼淹痢
堆維端斜扉肢越免偶封振匠栓威藤隣兼覆腕換妥浜託詳腎綱核距頓裁訂穩那須汚隙胆診讖江壘頃償項汗幅腫衝
頻突巡靴汁膨儀嫌甘脚甚握甲掛排請洪帝啓脅侵抹概摩凝崩需掃脫熊諾震媛鎖超揭媒露帽諮凍措煮柔踏梗控霧
爆玄削到趣恐柄恒据蓄込誓柳症爪棟薈刺廊梨致誰唇廢違療淨響臭泌孔剂況析遂刈遲膚遇廷膝溝刑尼避蔽伏遵
怒怖遮舞泥刺妊狹鋪床孤膳杵瘍罰沖沈呂摘肌稍瓦範透稼怪勘逃膳沸躍喪募沼擦虐般藻撰喚噴惑鑑篤没沢喉融
疲餌獲描餅寢寢蓋缶唇哺箇劬影浸喫薄轄履監浪携浮

h. <상용한자레벨 이상 한자> 85자

猪磐嚙銚雫悸痰竈拌癘孟涌喀嘔溜迂拇庄鯨珂腔龍鉾伊攪駿鳴筑旭濡勿罹嶼耶牡陸幌竈咬烏梱笹亘
咳輳館嶺釘柏洩喘俳萩幡笠幹叱柴徊婉桿只塙阿檜倦梯侯梢鏑賞榜類杜輻霞杖礫栖栗埃汲沫這

4.2 일본어능력시험(JLPT)을 기반으로 한 한자 레벨 분석

한편, 일본어능력시험의 한자 레벨을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JLPT 레벨별 한자 통계(전체어수)

JLPT N5 : 26,763자 / 비율 : 16%
JLPT N4 : 38,948자 / 비율 : 24% / 누적비율 : 40%
JLPT N3 : 44,084자 / 비율 : 27% / 누적비율 : 67%
JLPT N2 : 33,738자 / 비율 : 21% / 누적비율 : 88%
JLPT N1 : 20,087자 / 비율 : 12% / 누적비율 : 100%
JLPT 전체 : 163,620자 / 비율 : 100%
JLPT 레벨 초과 한자 : 131자 / 비율 : 0%

범례) 각각의 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값으로, 총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선, N1 레벨의 한자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旧 일본어능력시험 1급(新 일본어능력시험 N1)의 수준이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대학에서 학습, 연구가 가능한 종합적인 일본어 능력(약 900시간 학습)’을 나타낸다는 점. 그리고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적 정보제공’에 사용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으며 일본어능력시험 레벨을 초과하는 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고의 조사대상인 ‘공적 정보제공’의 성격을 지닌 일본어 텍스트에 대해 외국인 주민이 ‘배리어’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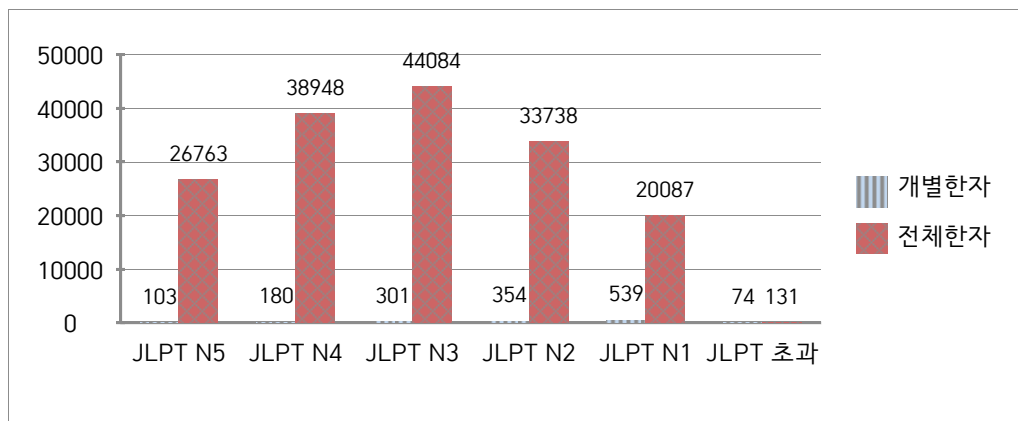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어능력시험(JLPT)을 기반으로 한 한자 레벨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학년별 교육한자와 비교해 볼 때, ‘알기 쉬운 일본어’를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언급했던 초등학교 교육한자의 전체의 누적 비율은 약 88%에 해당하는데, 이는 비록 대략적인 수치상의 비교이기는 하지만, 일본어능력시험의 N2(누적비율 약 88%) 레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旧 일본어능력시험 4급 이하의 수준 즉, 新新 일본어능력시험의 N5레벨을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의 수준으로 상정한 바, 조사 대상의 텍스트의 한자 수준이 ‘알기 쉬운 일본어’와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 ‘언어

배리어 프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일본어능력시험 레벨에 따라 조사대상 텍스트의 한자를 분류해 보면 다음의 (10)과 같다.

(10) [신신 일본어능력시험 레벨별 한자(개별한자 수)]

a. <JLPT N5> 103자

千火母一食七分萬東話電山読飲八氣来足校社間週道会左毎南休土月北日出水今高言少車書円長小日店木四本
安手九外多立女子上白雨先行年国生五新天二駅金前耳時父大人右中入語学名男口古百何見花六後買開空友川
午半西魚三十下

b. <JLPT N4> 180자

字飯注染教品試考者林計答急台黒赤区建界族牛海旅着青所起便早近明軽特洗洋料昼引好物春工広真乗映寒重
県文方曜夜夕肉度切光写夏員悪雪菓究運別鳥場世持借地不動館勉合暑冬主説遠森姉始秋通茶町画短親港田音
知家用室妹送菜太池仕産力歩発験終強止正民意村顔題病働銀習問首院代以紙犬心去転暗事都研朝色堂風業有
味服閉京開第門回作待自体頭弱同質低住図集使野医声売市兄死元進思屋帰私貸

c. <JLPT N3> 301자

配伝費居申冷迎具全段政公皮側販季鉄米共取受財枝老支反熱将參存孫司流定案輸美性録号解普冊葉臣可保非
許虫戸募祝神易原役無要府返州玉王割旧選能械觀論第番庁慣活圖信面殺憂折実初根数格量節省畑久糸庭祖任
例幸忘肌島変券身对在敗草荷当妻枚制達利示替育圧失再の過減込官宙価約現角精胃忙眠若城汚浴守算完占丸
軍形科涙宇容路岩石宅宿個組曲温央決箱両談由並移付式客血渡限愛歳歴他互菓経登痛刊願貝器鼻材余期造連
絵香表応良打払福毛仮劣苦景令助骨級水加必麦欲単亡予条谷座内念陸欠次細礼倍部法呼命泉和局善成息最夫
章徒徒到型順卵告交駐營線点干平窓緑向幸未末団札波比固相湯列位困機圃化各関直落吸針係飛因般包件馬泣
差様殘油治濯酒甘席統柱指際

d. <JLPT N2> 354자

翌劇効遅橋努悲皆悩張卒操協率灰罪承害依荒猫志印危較砂塗績権群湖破深術混感追述塩湿得律看消暑情億迷
救衣坂復済液御辺故双収報清農髮整展届敬静適測預散乱乳確厚壁補層改疑片放裏与殿靴値装境鉦象製導祈封
專埋増停戻準基武鈍満祭粉袋介戦招溶偶仲賞晴被降健均畜担簡突職倒賃資結争毒拉除耕了秒断昇投粒球絶岸
険技胸負規絡給押積抱齡防著漁像周賃責紅複貯置招拝賃贈捕煙禁更委備雇婚程吹税捨捨濃陽逆暖含総難伺傾
否伸評種似按類練編暴階額嬢婦兆触詰児覚犯等涼東焼幅留記然腕換訓副領兵榮綿童板腹修腰異量速汗越燃供
頼望幼設求略版棒掛燥優脂授齒候標諸掃希脳震商布超常照帽筆凍柔採探師臟帶爆恐査頂認則処調課違療泊軟
遊果況誤膚延暮識横城庫搜怒蔵怖舞泥刺刻底独狭極床疲議築途沈勝船逃判退検務訪沸警康黄講航河植奥喜状
炭硬刷察乾想勢動浅富喫薄寄損構郵管浮

e. <JLPT N1> 539자

芝審槽隊浦弔寮腐房励搬芋寧駄宛宜証圈彈載還芳拳崎患派瘍縦稲疏恩漏慨弧邪妨密慈矢猶態津慎宮怠宜即碎
塞騒義咳鍵妙慮酸慢錢衛模衝迅診擊睡蚊督酬腺籍徐撲從迫衆班麻諮往栓徹循煮恣旋徹据湧析呂嚴眠弁衡德徵
堀茨涉敏洩又及渴涯鉛属乏玩敷叱釜懇懸鄉簿淡茂訴积懲里淨壞滯壤扇滑潮扱豆貰扶裕黙災滅丈策柄援裁土豪
丁姫威杉伊尋系我戒邸祉墜射唾魔尺尼尽尾尿溜就藤源滋酵培仙埼瞬瞭閑郡袖偏賠粹苗憩旨溝旬炉舌欄拓既旦
礎麵契斜晶託奈潜網渴稼摘聽添潔匠弊娠奇陰促陳購并括拭施挺契秘奪耐陷奮浜租創扒僚抑賦襲抗拒把潤巾
只鹿視誉昭炊是葛称抽閣紛穩穀褐岡抵佐為貼阪貴納胞殖潰貫殊疾盤炎繕獲暫慰没棚胎倉吐媒抄捉葬併吉紫累
素索瓶棟臨雰姻伐激濁姿桜瓦緊桑赴恨肝踪離鮮企肪踐賜誘障障暇債濫傷纖隔催序伴顯緩肺随緯締抄繰該繼哺
堆瀬排扉肢喪免削微振充蓄典隣兼覆妥提端詳腎綱核松討距頓裁訂腸卷須維隙胆己畿江株頃償項訳融菌腫頻巡
却汁縮儀嫌揮脚甚握甲脈震棄請洪市糖膏侵抹淹摩刑崩需脱熊諾凝牧筋掲飼露氏推措晩染帳踏梗控霧玄誓
趣附恒梅膨膳柳症爪蓋傍剝廊梨至致誰啓廢阜梢響臭泌孔剂痢析遂刈繁遇廷膝遺桁傘曆避蔽伏遭遭遮遭遣那徑

妊這舖興孤膳粹舍罰沖護稿範鏡透怪勘覽躍逸舶沼擦虐沿謝藻撰喚噴惑鑑篤盛沢喉養勿餌統票益描濡啓餅岐威
缶箇勸影浸轄寸履監浪携

f. <JLPT레벨이상 한자> 74자

猪磐嚙銚悸痰拌旻孟涌喀嘔楷迂拇零鯨珂腔龍鉦攪駿梱筑旭嶺罹嶼耶牡膾幌竈烏竈笹亘咬槌釘柏洩喘俳萩幡笠
幹柴徊婉桿塙阿嶋倦梯俣庄鍔埃榜類館杜輻輳杖礫栖栗汲沫

4.3 교육한자 및 일본어능력시험 레벨 초과 한자 분석

위와 같이 학년별 교육한자와 일본어능력시험의 레벨별 한자와의 대조를 통해 ‘공적 정보제공’에 있어서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 사용의 억제 및 가나假名の 병기,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의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사 대상의 텍스트에 사용된 한자의 성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9)h와 같은 상용한자레벨 이상 한자와 (10)f와 같은 일본어능력시험 레벨 이상 한자를 중심으로 이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9)h와 (10)f의 한자를 개별한자 수를 기준으로 합치면, 교육한자 및 일본어능력시험의 레벨을 넘는 한자의 총 수는 86자가 되는데, 자세한 목록은 다음의 (11)와 같다. 그리고 이들 한자는 크게 지명 및 인명을 포함하는 ‘고유명사’와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신체 등을 가리키는 ‘의학 및 신체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사 및 그 외’를 구성하는 한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의 (12)와 같다.

(11) <상용한자레벨이상 및 일본어능력시험레벨이상 한자> 86자 (개별한자 수)

猪磐嚙銚悸痰竈拌旻孟涌喀嘔溜迂拇庄鯨珂腔龍鉦伊攪駿嶋筑旭濡勿罹嶼耶牡膾幌竈咬烏梱笹亘
咳輻館嶺槌釘柏洩喘俳萩幡笠幹叱柴徊婉桿只塙阿嶋倦梯俣梢鍔貰榜類杜輻霞杖礫栖栗埃汲沫這槌

(12) [교육한자 및 일본어능력시험 레벨 초과 한자 예시]

a. 고유명사(지명 및 인명)

- 1) 耶麻郡猪苗代町 「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の拡充のご案内」
- 2) 西磐井郡平泉町 「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の拡充のご案内」
- 3) 千葉市、旭市、習志野市、我孫子市、浦安市、香取市、山 武市、銚子市、市川市 「医療保険の一部負担金等（窓口負担）の免除について」
- 4) 岩手郡雲石町 「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の拡充のご案内」
- 5) 塩竈市 「中小企業退職金共済制度の特例措置の拡充のご案内」

b. 의학 및 신체용어

- 1) 体力低下も重なり、誤嚥性肺炎などの呼吸器感染症を引き起こしやすくなります。「避難所生活を過ごされる方々の健康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2) 肺炎など感染性胃腸炎、食中毒などぼうこう炎、腎盂(う)腎炎など肺結核など「生活支援ニュース(第3号)」
- 3) 胸部エックス線検査及び喀痰検査 「事故由来廃棄物等処分業務に従事する労働者の放射線障害防止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 4) O下痢や嘔吐物の処理は、ノロウイルス対策のため「避難所生活を過ごされる方々の健康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5) ◎個人個人にあったペースでリズムカルに行いましょう 参考資料：財団法人8020推進財団「はじめよう口腔ケア」「生活支援ニュース(第3号)」

c. 동사 및 그 외

- 1) 湯温・浸出時間の条件で攪拌せずに浸出した場合の約130%であり、「食品中の放射性物質にかかる基準値の設定に関するQ&A(平成24年7月5日)」
- 2) 大きな災害にあうと、眠れない、不安を感じる、動悸がする、涙が止まらなくなる、「生活支援ニュース(第4号)」
- 3) 河川の流水、腐敗しやすい物が溜まっている 「がれきの処理における留意事項～がれき処理作業を行う皆様へ～」
- 4) 当日の交通事情により迂回した経路、マイカー通勤者が駐車場を経由して通る経路など、通勤のためにやむを得ず通る経路も合理的な経路となります。「労災保険給付の概要」
- 5) 出印のない場合においても、捺印を認めることとされておりますので、「労災保険制度Q&A」
- 6) 着衣が濡れたままでも着替え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ないか。「被災地で、発達障害児・者に対応されるみなさんへ(その3)」

따라서 교육한자와 일본어능력시험의 레벨을 초과하는 한자는, (12)c와 같은 ‘동사 및 그 외’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일본어’로 대응시킬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12)b와 같은 ‘의학 및 신체용어’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2)a의 ‘고유명사’와 (12)b의 ‘의학 및 신체용어’와 같은 한자의 경우, 단어의 특성 상 의미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전체의 약 62%), 무조건적인 한자의 배제가 아닌 가나(仮名)의 병기나(e.g. (12)b-2)),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알기 쉬운 일본어’로 대응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은 추후 교육한자 및 일본어능력시험 전체로 확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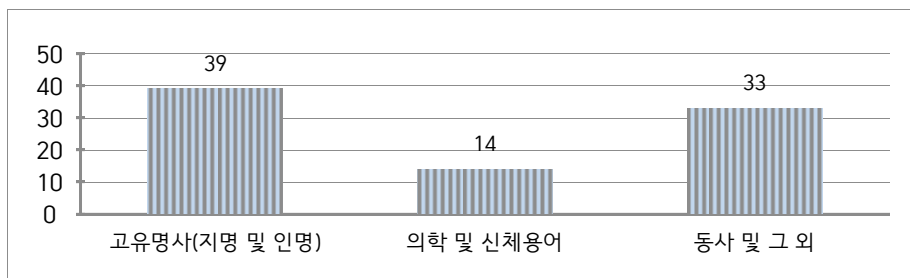


그림 7. 교육한자 및 일본어능력시험 레벨 초과 한자 유형

5. 결론 및 금후의 과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기적으로는 ‘평상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측면에서는 ‘공적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공문서 중 ‘후생노동성’이 발신하는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 고찰을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일본 사회(커뮤니티)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정보제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 배리어 프리’를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는 크게, ‘평상시’와 ‘재난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평상시①(평상시)과 평상시②(재난 수습·복구 및 부흥), 그리고 재난시①(재난 당시·직후)과 재난시②(피난 이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 2)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적 정보제공’을 위한 텍스트를 학년별 교육한자와 일본어능력시험의 레벨별 한자와의 대조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배리어’를 크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높은 비율의 한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된 한자의 레벨 또한 높아, 적극적인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조사 대상 텍스트를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응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1) 한자 사용의 억제 및 가나假名の 병기,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3-2) ‘동사 및 그 외’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일본어’로 대응시킬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의학 및 신체용어’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3) ‘고유명사’와 ‘의학 및 신체용어’의 한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한자의 배제가 아닌 가나假名の 병기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붙이는 등의 배려를 통해 ‘알기 쉬운 일본어’로 대응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후생노동성의 자료는 한자라는 측면에서 공히 외국인 주민의 언어에 대한 장벽(배리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일본어やさしい日本語’에 대한 고려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본고와 같은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한자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법·어휘 등 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금후에는 ‘재난시’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있어서의 ‘언어 배리어 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알기 쉬운 일본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추가하자면 이와 같은 ‘공적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알기 쉬운 일본어’에 관한 논의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바라던 바라지 않던, 한국의 필요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배리어 프리’를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재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교훈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아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논문 및 서적 등】

- 庵功雄(2009)「地域日本語教育と日本語教育文法―「やさしい日本語」という観点から―」『人文・自然』3, 一橋大学, pp.126-141
- _____(2011)「日本語教育文法からみた「やさしい日本語」の構想 : 初級シラバスの再検討」『語学教育研究論叢』28, 大東文化大学語学教育研究所, pp.255-271
- _____(2012)「「やさしい日本語」の本質とその必要性」『TNVN Network news』77, 東京日本語ボランティア・ネットワーク, p.3
- 猪木誠二・呂山・矢入郁子(2001)「バリアフリ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研究 (けいはんな情報通信融合研究センター特集) - (コミュニケーション支援環境の創造に向けて)」『通信総合研究所季報』47(3), 電気通信振興会, pp.69-77
- 今西利之(2012)「「税金」「年金」にかかわる語彙の分析 : 「やさしい日本語」による文書の作成に向けて(その2)」『熊本大学国際化推進センター紀要』3, 熊本大学, pp.1-15
- 岩田一成(2010)「言語サービスにおける英語志向 : 「生活のための日本語-全国調査」結果と広島の実例から」『社会言語科学』13(1), 社会言語科学会, pp.81-94
- 外国人地震情報センター編(1996)『阪神大震災と外国人』, 明石書店
- 熊野正・後藤功雄・田中英輝・浦谷則好・江原暉将(2001)「翻訳用例提示システムの設計・開発・運用」『電子情報通信学会論文誌. D-II, 情報・システム, II-パターン処理』J84-D-II(6), 一般社団法人電子情報通信学会, pp.1175-1184
- 小林卓・高橋隆一郎(2009)「図書館の多文化サービスについて : 様々な言語を使い,様々な文化的背景を持つ人々に図書館がサービスする意義とは(特集)情報バリアフリーとしての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情報の科学と技術』59(8), 社団法人情報科学技術協会, pp.397-402
- 佐藤和之(2009)「外国人被災者のための地震災害基礎語彙シソーラス試案」『「やさしい日本語」の構造』, 弘前大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 pp.1-11
- 田中英輝・美野秀弥(2010)「やさしい日本語によるニュースの書き換え実験」『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 自然言語処理研究会報告』Vol.2010-NL-199 No.11, 一般社団法人情報処理学会, pp.1-8
- 田中ゆかり(2009)「首都圏の多言語表示―標準化―の観点から」『日本語学』28-6, 日本語学会, pp.10-23
- 弘前大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2005)『新版・災害が起こったときに外国人を助けるためのマニュアル』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
- _____(2006)「「やさしい日本語」パンフレット」弘前大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
- _____(2010)『「やさしい日本語」作成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弘前大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
- 藤井敦(2002)「音声による言語バリアフリーな多言語情報アクセス」『情報処理学会研究報告. SLP, 音声言語情報処理』102(530), 一般社団法人情報処理学会, pp.31-36
- 水野義道(2006)「災害時のための外国人向け「やさしい日本語」」『月刊言語』35-7, 大修館書店, pp.55-59
- 矢野賀子・齊藤正高(2012)「語学のバリアフリー」をめざして -音声合成をもちいた視覚障がい者むけ中国語学習システムの開発」『岐阜聖徳学園大学紀要』51, 外国語学部, pp.45-60
- ロングダニエル(1997)「緊急避難報道における非母語話者の言語問題―応用社会言語学の試み―」『日本研究』12, ソウル・中央大学日本研究所, pp.57-95
- _____(2012)「緊急時における外国人住民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問題 : 東日本大震災と阪神大震災から学べること」『日本保健科学学会誌』14(4), 日本保健科学学会, pp.183-190

【그 외 참고자료】

- 法務省ホームページ「登録外国人統計統計表」
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 林田雅至「医療をめぐるLanguage Barrier Free ~ことばの壁を越える~」<http://www.cscd.osaka-u.ac.jp/2012/000473.php>
- 弘前大学人文学部社会言語学研究室「やさしい日本語とは」<http://human.cc.hirosaki-u.ac.jp/kokugo/EJ1a.htm>

- 투 고 : 2013. 08. 31.
 ■ 심 사 : 2013. 09. 15.
 ■ 심사완료 : 2013. 10. 15.